



한봉의 피해에 대처하는 방법

전북 진안군 분회장
박 병 옥

지난 한해는 국내외간에 다사다난했던 해였지만 우리 양봉업계에서는 수십년만에 예상치 못한 이상기온과 아카시아 밀원의 흉작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해를 입은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중앙행정기관에서도 밀원식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재정적인 예산편성도 세워져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회원께서도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밀원식물을 심는 것이 중요하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겠지만 그보다는 우선 급선무로 자연 환경이 주는 천연환경을 적극적으로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봉의 피해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 경험을 적고자 합니다.

산, 계곡이 있고 물이 깨끗한 지역은 한발 앞서 한봉업자에게 선점 당해서 양봉이 설 자리가 점차 적어지고 양봉이 선점한 지역도 한봉에 잠식당해서 산, 계곡에 좋은 환경에서 밀려나 평야로 밀려나서 화분주고 사양해서 여름벌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산, 계곡과 평야지와 편차는 사육경비가 70%는 더 들지 않습니까?

첫 번째 봉우님께서서는 주위에 한봉이 양봉 사정거리에 있는지 수시로 감시를 하고 한봉에게 침투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양봉이 선점하고 있어도 한봉업자가 조용히 침투하여서 인근 일반농가에게 무료로 한봉을 한두통 분양하면서 자기주위에 지원세력을 은밀히 만들고 1년쯤 지나면 마을 사람을 앞세워서 양봉을 정리하고 한봉으로 대체하라는 권유 아닌 회유가 들어옵니다.

너는 혼자고 우리는 여러사람이 사육하고 있으니 대를 위해 소가 협조하라는 식으로 타협 아닌 압력을 가해옵니다.

이때에 누가 기득권이 있는가를 따져서 한봉이 이동할 것을 요구해야 하고 이에 대해 법적인 분쟁도 각오하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세 번째 소규모로 기존의 한봉을 하는 농가가 있으면 한봉과 양봉에 경제적인 비교를 설명하고 양봉으로 전환할 것을 권유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50% 지원하기로 하고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하기로 약속하십시오. 그리해도 아니되면 미련을 버리고 다른 곳을 선택하십시오.

네 번째 한봉의 피해를 경험한 회원들이 많이 있겠지만 일부 몰지각한 한봉업자는 무밀기가 되면 한봉은 24시간 계속 사양을 하게 되므로 양봉이 근처에 가게 되면 며칠간은 소량으로 사양액을 공급해서 양봉이 많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때가 되면 한봉통 속이나 사료비닐봉투에 약을 넣은 사양액을 먹게하여 바로 그 자리에 죽지 아니하고 양봉통속으로 돌아와서 토해내게 하여 벌통 속에 있는 유봉까지 전멸시키는 악랄한 방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4년간이나 벌이 죽으면 다시 사오고 죽으면 다시 사오는 악순환이 계속 되었습니다.

물증을 잡기란 10분에서 15분 사이에 행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쫓아가면 물증은 없고 심증만 남을 뿐입니다.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전하고자 합니다. 무밀기가 되면 양봉장을 잘 관찰하고 도봉기가 보이며 여

자인부를 구해서 한봉장 주변에 약 1주일간 내지 10일간 경비를 세워서 약을 못 놓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하면 그 기간안에 양봉은 한봉을 계속 공격할 것이고 한봉은 방어하느라고 선풍질을 못해서 벌통속에 온도가 올라가서 상단에서 하단까지 관통을 하여서 상품가치가 없는 설탕사양액이 되어 버리고 분봉을 받아놓은 것은 양봉이 공격하면 집을 비우고 다 공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하면 한봉업자는 항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수년간 피해를 보면서 얻은 경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본인 봉장 1km 근거리 에 한봉업자가 들어왔기에 한봉업자에게 피해를 볼 것이냐 이동을 할 것이냐 협상을 한 결과 1년간만 유보해주면 2005년도에는 이동하기로 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의 양봉을 무밀기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켜서 협상을 마쳤습니다. 밀원수를 심어서 채밀을 하는 것이 최상이지만 주변 환경에 이점도 무시 못하는 것이 양봉업이 아닙니까?

좋은 환경을 확보하고 밀원수를 심고 도전적이고 개척정신으로 양봉업을 발전시키고 절대로 한봉에 밀려나는 어리석음을 당하지 마십시오.

한가지 단서를 붙여서 말씀드리면 소규모로 한봉을 사육하면서 일절 사양을 하지 아니하고 채밀해서 한 되에 20~30만원까지 판매하는 한봉업자도 제 주위에 있습니다. 그 사람과 본인사이에는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한봉업자가 개인이득을 위해서 양심을 버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해가 가고 새해가 되고 어느덧 3월이 되었습니다. 전국에 계신 봉우님들께서 하시는 양봉업이 금년에는 지난해에 손해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길 기원하겠습니다.

금밀초(다년생 숙근초)

꽃이 가장 귀한 시기에 오래 피고 지는
7.10~8.31일(약50일) 초본류 밀원부터 조성합니다!



☘ 2003년~2004년 2년에 채종포용 약 20만평 심을 종자를 보급함.

☘ 채종포용 종자 분양가 : 300평~5만원.

(자세한 질문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십시오)

자택 : 042-541-5522 봉장 : 042-841-8793

H.P : 011-453-8798 농협 : 170383-52-050523(강희근)